

권한도 조직도 없는 신도회 조계종 신도 정책 변화 필요

사찰 운영에 있어서 신도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신도를 대변할 수 있는 신도회의 역할과 권한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신도 조직과 정책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홍 회장 간담회서
신도 조직 문제 제기

교구 9곳 신도회 미결성
사찰 신도회는 파악 안돼
"출재가 의식 개혁 필요"

교구신도회 결성	
직할교구, 2교구 용주사, 4교구 월정사, 7교구 수덕사, 9교구 동화사, 10교구 은혜사, 11교구 불국사, 15교구 통도사, 16교구 고운사, 17교구 금산사, 21교구 송광사, 22교구 대흥사, 23교구 관음사, 25교구 봉선사	
교구신도회 미결성	
3교구 선흥사, 5교구 범주사, 6교구 마곡사, 8교구 직지사, 12교구 해인사, 13교구 쌍계사, 14교구 범어사, 18교구 백양사, 19교구 화엄사, 24교구 선운사	

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포교원 담당자도 "교구신도회와 주요사찰 신도회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사찰 신도회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성된 사찰 중에서도 교구 신도회로서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소수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호로만 신도 조직화

문제는 하위조직에 대한 권한이 없는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중앙신도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단에서도 꾸준히 신도 조직화를 외쳤지만 행정단위와 교구단위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실제 현재 교구신도회가 구성된 사찰은 15곳. 전체 24개 분사 중 아직까지 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9개 교구분사에 달한다. 하지만 일반 사찰의 신도회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명석 포교원 신도팀장은 "지역 신도회에 관한 신도법 조항을 없애고 교구신도회로 단일화했지만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이 있다. 지역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점차 구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스

며 "일선 사찰에 사찰신도회가 꾸려진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교구신도회의 영향이 일반 신도들까지 전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신도교무금 활용 등 권한달라" 서울권역을 총괄하는 직할교구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직할교구는 운영회비를 거둬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상근인력을 채용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신도회가 조계종 포교원에 신도교무금을 비롯해 신도회비와 관련된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재우 중앙신도회 대변인은 "중앙신도회 한해 예산이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으로는 교구신도회를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앙신도회 뿐만 아니라 교구신도회, 더 아래로 사찰 신도회에도 의무 외에도 권한이 주어져야 서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가 무관심도 개혁돼야

일부에서는 스님들이 신도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출재가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안식 前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은 "승가가 재가를 불교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재가도 승가를 중심으로 존중하는지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권역별 교수불자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최용준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히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출재가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출가자 탓도 있지만 재가자의 무관심 문제가 크다"며 "재가자들이 기복에서 탈피해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사찰에서 신도회를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이 출발이다. 재가자는 출가자의 보조자로 머무른다면 불교 발전의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월 31일 제임 임기를 시작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첫 공식 행보로 서울 흥제동 개미마을서 쌀,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종 34대 집행부 첫 시작은 '나눔'

자승 스님·총무원, 흥제동 개미마을서 봉사활동

10월 31일 임기를 시작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첫 행보는 '나눔·실천'이었다.

자승 스님과 조계종 중앙총무기 관 및 산하단체 교역직·일반직 총무원 200여 명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흥제동 개미마을에서 쌀·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승 스님과 총무원들은 독거

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에 쌀 290포대와 연탄 2만 4천 장 등 총 4000여 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봉사에 앞서 자승 스님은 "2년 전에도 이곳에도 자비나눔 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자비 회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총무행정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다치지 않고 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열린 중앙총무기 관 교역직·일반직 총무원 대상 전체 조 회에서 권위 의식을 탈피한 총무원 이 될 것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34대 집행부는 33대보다 더 강한 의지와 결집력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어떠한 고난과 난제가 닥쳐도 한마음 한 뜻으로 한

국불교 중흥을 위해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총무원 전체 총무원들에게 권위 의식을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자승 스님은 "선거 기간동안 24개 교구분사를 다니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총무원이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교역직·일반직 총무원들에게 봉사는 기본이다. 본사의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봉사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추대

조계종 중앙총회 제196차 정기회서 만장일치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에 지선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11월 1일 열린 제196차 정기회에서 첫 안건으로 상 정된 제18교구 고불총림 백양사 방 장에 지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 했다.

이에 앞서 백양사는 8월 30일 산 중총회를 열고 참석 인원 만장 일치로 지선 스님을 선출했다. 총림법 제 6조 3항에 의하면 총림 방장은 산중 총회에서 추천해 중앙총회에서 추대 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선스님은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61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4년 경남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제주 관음사, 영광 불갑사, 장성 백양사 주지와 조계종 종정 사서실장, 실천불교전국승가 회 공동의장, 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백양사 수좌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중앙총회는 법제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대종사 특별전행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원로회의 의 원 대원, 지성, 성파, 성우 스님에 대



해서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또한 호법부장으로 임명된 원명 스님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을 결의했다.

신종일 기자
총회 관련기사 2면

965호 INDEX

시방세계 조계종 승가고시 현장 첫 공개 5



신행 외국어 가능 인제 템플스테이 6

학술·문화제 "불교 실크로드 해양 순환로로 전례" 9

테마로 읽는 사찰 기행 단풍이 있는 절 청평사 12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 법회

일시 불기2557(2013)년 11월 8일(금) 오후 2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